

국어의 자음군 단순화 현상* - 최적성 이론을 중심으로 -

문 양 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1. 서 론

우리말에는 흔하지는 않지만 체언 어간이나 용언 어간의 형태소가 겹자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겹자음들이 실제 발음이 될 때는 환경에 따라 겹자음 중 하나만 음성으로 실현된다.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올 때는 두 겹자음 중 둘째 자음이 어미의 음절두음으로 실현되면서 둘 다 발음되지만(예:앉아→[안자]) 그 밖의 경우 즉,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거나(예:삼과→[삼과]), 아니면 특히 체언이 단독형으로 쓰일 때는 두 자음 중 반드시 하나는 발음되지 않는다(예:값→[갑]). 이 음운 현상을 겹자음 혹은 자음군 단순화라고 한다.

이 논문은 이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왜 자음군 중에서 하나의 자음만 음성으로 실현되는지, 또, 모든 종류의 겹자음에 대하여 어떤 자음이 탈락되는가를 결정짓는 일관된 원리가 존재하는 지, 그리고 탈락 자음을 예측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면 국어의 다른 자음에 관한 음운현상과도 연관성이 있는지 등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로써 최적성 이론을 채택하였고 보편적인 제약을

* 이 논문은 1997~1998년 해외 연수 특별 연구비(서울대학교)로 이루어진 것임.

설정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최적성 이론의 장점을 통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소가 지배하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간결하게 설명해 보려 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론에 이어 본론의 첫 부분에서는 국어에 나타난 자음군 단순화의 현상을 표준 발음법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정리할 것이고, 그리고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간략히 검토해볼 것이다. 다음으로 본고가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제약들과 제약순을 필요로 하는지를 밝힐 것인데 모든 자음군 단순화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공통적인 제약과 공통적인 제약순으로 설명하게 된다.

2. 자음군의 표준 발음과 기존의 연구 개관

2.1 자음군의 표준 발음

방언에 따라 혹은 개인의 발화 안에서 일어나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의 변이에 대한 연구도 많지만, 본고는 자음군 단순화의 근본적인 원리를 밝혀보기 위해서 우선 표준어의 현상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표준어 규정」(1988, 문교부 공시)에서 규정하는 표준 발음법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 2」(1998, 국립 국어 연구원), 「표준 한국어 발음 대사전」(1993, KBS편, 어문각)의 자료를 보충¹⁾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1)

구분	자음군 C ₁ C ₂	표준발음법	예	비고
C ₁ 이 저해음	ㄱㅅ	ㄱ(ㅅ)	뿔, 뉘, 샷	
	ㅂㅅ	ㅂ(ㅅ)	값, 없다, 가없다	
C ₁ 이 비음	ㄴㅅ	ㄴ(ㅅ)	앉다, 없다	
	ㄴㅎ	ㄴ(ㅎ)	많다, 앉다, 꿇다	

1) 이 세가지의 자료들은 모두 일치하였다.

구분	자음군 C/C₂	표준발음법	예	비고
C ₁ 이 유음 ²⁾	ㄹㄱ	(ㄹ)ㄱ	닭, 흙, 칩, 까닭, 기슭, 뭍다, 붙다, 입다 갇다, 낚다, 늙다, 맑다, 굶다, 굶다, 엷다,	단,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와 함께 쓰일 때는 'ㄹ'이 남 는다. 예) 말(←맑)게 갠 하 늘, 책을 일(←엷)고 있다.
	ㄹㅁ	(ㄹ)ㅁ	삶, 앞, 읊다, 읊기다, 삶다, 달다, 짙다, 굶다, 굶다, 짙어 지다	
	ㄹㅍ	(ㄹ)ㅍ	읊다	
	ㄹㅂ	ㄹ(ㅂ)	여덟, 앞다, 엷다, 낚다, 짙 다, 뻗다, 삶다	'뻗다'의 모든 경우에는 'ㅂ'으 로 발음하며, '늙다' 중에는 일부 넘적다리, 넘동글다 등 의 예외를 관례 상 인정한다.
		(ㄹ)ㅂ	뻗다	
	ㄹㅅ	ㄹ(ㅅ)	돋, 외곶	
	ㄹㅌ	ㄹ(ㄷ)	환다, 훈다, 훈다	
ㄹㅎ	ㄹ(ㅎ)	싫다, 잃다, 달다, 굶다, 굶 다, 뚫다, 굶다, 씹다		

이 작업을 한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음군 단순화를 다룬 기존의 논
문들 가운데에서도 간혹 표준어의 현상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
우가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ㄹㅂ' 겹자음의 경우에는 위의 표준어 규정과

2) 'ㄹ'이 선행자음으로 오는 겹자음의 수와 그 어휘례가 월등히 많은 이유를 살펴본다
면 겹자음이 형성될 15세기 이전에는 오늘날과 같이 겹자음 중 하나만 발음해야 하
는 제약이 있지 않고 둘 다 발음하는 것이 당시 언어의 현실이었다. 한편 언어 보
편적인 음절 구조 제약인 '공명도 연결 제약(sonority sequence constraint : 한 음절내
에서 음절핵의 공명도가 가장 높고 양쪽 끝을 향하면서 공명도는 점차 낮아진다.)'
에 대하여 국어도 어긋나지 않고 동시에 음절말음의 두 자음을 다 발음해야 한다면
자음군 중 선행자음의 위치에 공명도가 높은 유음이 올 경우에 후행 자음의 종류는
그만큼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유음이 선행하는 자음군의 수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명도가 낮은 저해음이 선행자음으로 오는 경
우에는 후행 자음의 종류가 제한된다. 이것이 그대로 국어의 자음군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견해가 이진호(1997)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공명도가 높은 비음이 선
행하는 자음군의 수가 예상과 달리 적은 이유는 해당 어휘가 역사적인 과정에서 소

달리 ‘ㅁ’만 발음한다고 보는 연구³⁾들이 많이 있어서 가장 혼란스러웠으며 간혹 ‘ㄱ’도 ‘ㄴ’만 발음된다고 보는 사례가 있었다.

위의 1)에서 어느 자음이 탈락하는가를 살펴보면, 실제로 탈락의 양상이 간단하지 않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자음군의 두 자음 중 선행 자음이, 또 다른 경우에는 후행자음이 탈락하며, 첫자음이 유음으로 이루어진 자음군 중에서도 유음이 탈락하는 경우와 후행자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공존한다(예:(ㄴ)ㅁ ~ㄴ(ㄷ)). 더욱이 ‘ㄱ’ 겹자음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될 때에 한해서는 ‘ㄱ’이 탈락한다.

이같은 자음군 단순화 현상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어떤 해석과 논의가 있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 기존의 연구 개관

자음군 단순화만 다루는 연구도 많으며 전반적인 자음에 관한 음운 현상과 함께 언급한 연구들도 있는데, 음운 이론의 변천과정에 따라 살펴본다면, 먼저 규칙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연구들로서 김진우(1971, 1972, 1973), 이혜숙(1980), 이진호(1997) 등이 대표적이며, 다음으로는 제약이나 음절화 원리, 자질 기하학적인 해석을 한 연구로서 김영석(1984), 김차균(1987), 오미라(1993) 등이 있었고 최근에는 최적성 이론을 적용한 시도로서 Iverson & S.Lee(1994), 김원보(1998), 전종호(1998)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은 하나의 원리나 하나의 규칙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으므로 부득불 예외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예외가 없는 안정적인 저해음이나 비음계 자음군을 중심으로 한 설명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변이는 많을지라도 단어의 수가 많아서 사용 빈도수가 높은 유음계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적성 이론과 같이 다양한 원리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멸되고 아울러 자음군 자체도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김진우(1971,72,73), 허웅(1985), 김차균(1987), 오미라(1993), 김원보(1998) 등

채택한 논문에서조차도 복잡한 모든 현상을 다함께 아우를 수 있는 제약들과 제약순을 통한 설명은 없었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여러 연구들이 취하는 기본 입장을 위주로 해서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김진우(1971, 1972)는 국어에는 종성의 자음들이 미파화 되는 폐구 조음원칙이 존재한다고 보면서, 개구도가 낮은 음운이 남는다⁴⁾고 보았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이 설명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김진우(1972, 1973)는 ‘ㄱㅁ’, ‘ㄱㅊ’, ‘ㄱㅍ’, ‘ㄱㅂ’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grave]자질을 가진 C₂가 탈락하고 나머지는 예외로서 C₁이 탈락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조음 위치 특성상 강한 자음은 [+grave]의 자질을 가진 것이며 이 강한 것들이 음절 말 음 위치에 남는다는 것이 요지이지만, 들다 [-grave]인 예(앉고)에서는 무엇이 탈락을 지배하는 원칙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또 왜 종성의 위치에 강한 자음이 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음운론적인 설명도 없다. 전상범(1976)도 [+cor]자질의 자음이 탈락하는 규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혜숙(1980)은 들 다 파열음일 때에는 두 자음간의 선후 위치가 중요해서 C₁이 남고, 비음이나 유음계의 자음군에서도 비음과 유음이 남는 예가 더 많다는 것을 예로 제시하면서 공명도가 더 높은 자음이 종성으로 남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ㄱㅁ’ 중에서 ‘ㅁ’이 남는 것도 이것이 더 공명도가 높다고 본 점에서 공명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공명도가 더 높은 ‘ㄱ’이 남지 않는 경우(읽자→익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했다.

4) 김진우는 개구도를 자음강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면서 결국, 파열음(자음강도 1도)은 종성에서 미파화(자음강도 0도)되면서 오히려 강도가 더 높아진다고 했다. 이는 Vennemann(1988) 등에서 제시된 ‘A syllable coda is the more preferred ; the less the consonantal strength of its offset’이라는 범언어적 경향과 국어가 위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Vennemann(1988)은 영어 및 기타 여러 언어에서 종성파열음의 미파화 현상은 음절말 위치에서 구강 조음동작을 상실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서 ‘weak, unaspirated, unreleased’하게 되는 자음약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본고도 이와 같은 견해이다. 따라서 국어도 종성에서는 자음이 없는 것이 좋으며 있어야 한다면 약화되어가는 범언어적 경향과 일치한다.

허웅(1985)에서도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언급하고 있다. 두 자음이 다 파열음일 경우는 선행 자음이 남고, 유음이 선행하는 자음군에서 두 자음의 조음 위치가 같으면 유음이 남고, 조음 위치가 다르면 유음이 탈락하는데 ‘읽고, 여덟’ 등에서는 유음이 탈락하지 않는 등 유동성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어떤 원리가 작용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김차균(1987)은 음절말음의 두 자음이 다 발음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선행 자음이나 후행 자음이나의 위치를 먼저 고려한 이후의 자음 공명도와 자음 강도에 따라서 탈락 자음이 결정된다고 본다. 요지는 잘 들리는 것이 남게 된다는 점이지만, 공명도와 강도라는 상반된 기준을 동시에 같이 고려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김선미(1991)는 특히, ‘ㄹ’음 뒤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더 발음하기 쉽기 때문에 결국 남게 되는 경향이 크다고 보지만, 유음과 후행하는 자음 중에서 ‘ㄹ’이 왜 탈락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김승곤(1996)은 음절말음의 두 자음이 조음 위치가 다르면 공기길이 작은 것이 발음되고, 조음 위치가 같다면 유성음이 남는 것으로 이 현상을 기술하고 있으나, 이것에 대한 음성학적 설명이 없다.

전종호(1998)는 역시 세 자음이 연속할 때 만일 다 발음한다면 어느 것이 가장 청각적인 효과가 없을 것인지를 관점에서 자음군 단순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잘 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음은 화자들이 헛된 노력을 할 필요 없이 쉽게 탈락시킬 것이라는 발화 가설에 입각해서 최적성 이론의 제약순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파열음으로 시작하는 자음군에서는 두 번째 자음이 탈락하는 데 이유는 미파화된 파열음 뒤라는 음성적 환경 때문이며(이때의 제약순은 Preserve(stop/V_C) >> Preserve(stop/L_C) >> Preserve(stop/stop_C)), 유음계의 자음군에서는 후행 자음이 음성적인 단서가 약한 coronal이면 탈락하며 dorsal이거나 labial이면 유지된다(이때의 제약순은 Preserve(L/_t) >> Preserve(L/_p) >> Preserve(L/_k))고 조음 위치 측면의 자음 강도로써 설명했다. 그렇지만, 남거나 탈락되는 자음과 비교되어야 할 자음은 다른 자음군의 C₂가 아니라, 같은 자음군 내에서 탈락되거나 남는 유음일 터인데 왜 유음이 남는지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설명이 없다. 오미라(1993)도 같은 견해로서 자음의 조음 위치 자질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들이 자음군 단순화의 환경을 휴지 앞이나(CC두자음 연속), 혹은 자음 앞의 환경으로 인한 CCC 세자음 연속으로 본 견해였다면, 김영석(1984)에서는 음절화의 과정에서 Stray Erasure 규칙을 통해서 음절 구조를 부여받지 못한 고립 자음이 탈락한다는 음절 구조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어느 자음이 음절 구조를 할당받지 못하는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밖에도 최적성 이론을 통한 몇몇 연구들이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우선 *COMPLEX CODA라는 음절말음 구조 제약을 우선 순위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Iverson & S.Lee(1994)는 *Complex >> Parse >> Peripherality >> Coda Sonority⁵⁾라는 제약순을, 김원보(1998)는 No Coda Complex >> Consonant Place Constraint >> Spontaneous Voice Constraint⁶⁾라는 제약순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음운적으로 자음강도가 강한 변자음을 남기고,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공명도가 더 높은 자음을 남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국어는 왜 언어 보편적인 음운 현상과 달리 음절말음 위치에서 자음강도가 강한 자음을 남기는 제약을 우선 순위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제약과 제약순을 도입했을 뿐이지 현상의 기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제약순으로는 ‘ㄹㅂ’의 자음군에서 ‘ㄹ’이 남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약순을 변경해야만 하므로 어느 자음을 탈락시킬지를 결정하는 음운 제약의 순서가 모든 자음군의 경우에 대해서 일관적이지는 못하므로 적절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규칙들도 기준이 되는 주요 규칙과 마이너 규칙을 여럿 동반하면서 규칙순을 때에 따라서 조정한다면 이 모든 현상을 기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음군 단순화라는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는 같은 제약과 같은 제약순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훨씬 보편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둘 중에서 공명도가 더 높은 것을 탈락시키면 안된다.

6) 유음과 비음은 탈락시키면 안된다.

3. 최적성 이론과 자음군 단순화

여기서는 본고가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최적성 이론을 통하여 고찰한 결과 설정하게 된 제약들과 제약순을 밝힐 것인데 제약순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제시해보겠다.

3.1 음운적 제약

현대 국어는 형태소 차원에서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 말의 음절말음의 위치에 한 개의 자음뿐 아니라 두 개의 자음까지도 허용한다. 그러나, ‘이젠 없지→’ 업지[업찌]’에서 보듯이, 용언어간을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시켜서 발음할 때에 두 자음 중 하나를 탈락시키고 하나만 발음해야 한다. 이 현상만을 본다면, 겹자음의 단순화의 환경을 어중의 $C_1C_2C_3$ (세자음의 연속)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사실, 앞서서 연구사를 개괄해보았듯이 세자음의 연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가장 청각적인 효과가 떨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겹자음 단순화에 대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다.

한편 ‘너, 무얼 먹었니?’하고 물었을 때, ‘닭→탁’하고 겹자음을 단순화시키는데 용언어간과 달리 체언 어간은 반드시 어미와 결합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단독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 때에는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이유가 세자음이 연속했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겹자음 단순화를 포괄적으로 즉, 체언의 경우와 용언의 경우를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중 세 자음의 연속에서 비롯된다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음절말음 위치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자음만이 와야한다는 우리말의 음절 구조 상의 제약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견해를 좀 더 증명하기 위해서 영어의 예와 우리말의 예를 비교해보겠다. 영어에도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있는데, ‘must be’를 발음할 때면 ‘stb’의 어중 세 자음 연쇄가 생기고 이 때 ‘t’가 탈락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단독으로 ‘must’를 발음한다면 음절말음의 ‘st’를 다 발음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말과 영어는 사정이 좀 다르다. 물론 ‘lamb’는 형태소 상에서는 자음군이 있

어도 역사적인 변천의 결과 오늘날 발음은 ‘m’하나만 되고, ‘kept’의 경우도 빠른 발화에서는 ‘p’만 발음하는 식으로 조정되기도 한다. 음절말음에 하나 이상의 자음을 피하는 언어 보편적인 경향에서 영어도 예외가 아니다.

달리 말해서 겹자음에 대해서 둘다 발음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음운 환경에 따라서 그중 하나를 탈락시키는 것이 수의적인 영어와 달리, 우리말은 음절말음의 자음 둘 중 하나만 발음하는 것이 의무적⁷⁾이라는 것을 유의하고 보면, 자음연쇄의 측면보다는 음절말음 조건에 입각하여 해결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는 자음군 단순화보다는 음절말 자음군 단순화 현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음절 구조 제약인 No Coda와 *Complex(Coda)를 가장 우선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 2) No Coda : 음절말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 3) *Complex (Coda) : 음절말음에는 분절음이 둘 이상 올 수 없다.

그리고 현대 국어에는 음절말음이 있는 음절형이 존재하므로 이들간의 제약순은 *Complex (Coda) >> No Coda가 될 것이다.

4)

/값+도/	*Complex	Nocoda
값도	*	**
갑도		*
갓도		*

3.2 형태적 제약

최우선적으로 설정한 *Complex제약이 발음의 편이를 보장하는 음운 제약일 때, 발음 편이만 고려 된다면 국어의 음절말 자음군은 다 탈락해도 좋을 것이고 음절말음이 하나도 없는 개음절 상태가 될 것이다. 실제로는 자음군 단

7) 그러므로 기존의 논의들에서 음절말음의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될 경우를 가정하고 나서 예상되는 자음 강도나 공명도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공허하다고 여겨진다.

순화가 적용된 이후 적어도 하나의 자음은 남게되므로, 본래의 형태소를 어느 정도는 보존시켜서 의미 전달을 보장하기 위한 형태적 목적의 제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고는 Parse제약⁸⁾을 제안한다.

5) Parse : 입력형의 요소는 출력형에서 구조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약은 *Comp와 Nocoda사이에 와서 음절말 자음이 둘 다 탈락하여 완전히 개음절 상태가 되지는 못하도록 작용하여 의미의 혼란을 막게 된다.

6)

	*Complex	Parse	Nocoda
값도	*!		**
갑도		*	*
가도		**!	

다음으로 이처럼 음운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개음절 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나의 음절말 자음은 남아 있어야 할 때 그렇다면 어느 자음이 남는 것이 좋을까를 고려해야 한다.

역시 형태적인 성격의 문제이며, 탈락하지 않고 남아있어야 할 자음으로

8) 본고가 correspondence 이론의 탈락 금지 제약인 max 대신에 containment 이론의 parse 제약을 설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자음군 단순화 결과 탈락되는 자음은 단지 음절 구조를 부여 받지 못한 것일 뿐이지 아주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분절음 자체가 아주 탈락해버렸다고 본다면 ‘책을 읽고 나서’의 경우 ‘읽고→일고→일꼬’가 되는 어미초 자음의 경음화 현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어 음운 현상에서 용언어간 ‘ㄹ’ 뒤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너는 머리가 참 길구나’에서 ‘길꾸나’로 발음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일꼬’의 경우에 경음화된 ‘꼬’는 남아있는 ‘ㄹ’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음절 구조를 부여 받지 못했을 뿐인 ‘ㄱ’ 때문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parse’ 제약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도표6)의 최적형은 ‘kaptɔ’가 아니라 ‘kap<ɾ>tɔ’이다.

갖추어야 할 요건이란, 가능하면 다음 음절의 두음과의 음운 접촉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질이 필요하다고 본고는 생각한다. 그래야 형태소 보존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목적에서 현대 국어에서 일반적인 자음 동화 현상을 살펴보면 특히 조음위치의 동화에서 뚜렷한 방향이 보인다.

눈길> 농길

발보다>밥보다(발보다 눈에서 일하기가 더 쉬워.)

이들 예에서 보면 위치 자질 중에서 coronal 자질은 labial이나 velar 자질에 동화⁹⁾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국물 > 궁물’의 예에서 볼 때에 선행 음절 말음인 ‘ㄱ’의 위치 자질은 후행 음절의 위치자질인 labial에 동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나, 좀 부자연스럽기는 해도 ‘김밥과 사이다’를 빨리 발음할 경우에 ‘박과’에서는 labial이 velar로 동화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보면 labial보다는 velar가 가장 강한 위치 자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다른 위치 자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해서 후행 음절의 두음에 동화되지 않는 위치 자질을 가진, 자음강도가 높은 자음을 자음군 단순화 과정에서 음절 말음 위치에 남기는 것이 형태 보존의 목적에 부합된다는 것

9) 조음위치 자질들 사이의 상호 자음강도를 논의하면서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동화되는 coronal자음이 종성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먹도록→*먹고록’의 경우처럼 초성 자리에 있는 coronal자음은 앞 음절의 종성 자음이 더 강한 위치 자질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에 동화되지 않는다. 대신, ‘먹도록’처럼 후행 음절의 초성에서 경음화가 일어나서 서로 접촉하는 앞뒤음절의 종성과 초성사이의 공명도 위계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 결과 접촉하는 선행 종성의 공명도는 후행 초성의 공명도보다 같거나 높아야 한다는 음절 접촉의 보편적인 제약(Vennemann(1988), Clement(1990)의 Sonority Sequence Principle : Max rise, Minimal drop)을 만족시키게 된다. 단, 조음 위치와 무관하게 평음보다는 경음의 공명도가 더 낮다는 설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조음위치와 자음 강도를 설명하는 많은 논문(김차균(1976), 이병근(1977))들에서 음절내의 위치와 위치동화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아울러서, coronal 자질의 음성적 특성에 관한 논의는 Stevens(1989), Byrd(1992), Clement(1990), Yip(1991) 등을 참조.

이 본고의 주장이다.

이를 제약화하면 Parse-peripherality가 될 것이다.

- 7) Parse-peripherality : 구강의 주변부에서 조음되면서 자음 강도가 높은 자음을 음절 구조 부여하라.(주변음이 탈락되면 안된다.)

물론 기존에도 자음군 단순화를 해결하는 실마리로서 조음위치를 거론했던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모두 단순히 음운적인 현상으로만 보았을 뿐 왜 강한 자음이 남아야 하는지를 본고와 같이 형태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예들이 없었다. 단지 언어 보편적인 경향과 달리 국어는 음절말음의 자리에 자음의 음운적 성격상 자음강도가 더 큰 것을 좋아한다는 정도의 기술이었다.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음절말음의 자음으로 공명도가 더 높은 것을 좋아한다는 언어 보편적 제약도 필요한데 이 둘을 모두 같은 음운적 제약으로 볼 경우에 상호 모순될 뿐 아니라 음절말음은 어떤 종류의 자음이 와도 무방하다고 할 수도 있어 당황스럽게 된다.

이 제약은 Parse의 다음 순으로 와서 무엇이 남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8)

/값+도/	*Complex	Parse	Parse-peri.	Nocoda
값도	*!			**
값도[값또]		*		*
갓도(→간도→가또)		*	*!	
가도		**!	*	

9)

/삼+과/	*Complex	Parse	Parse-peri.	Nocoda
삼과	*!			**
삼과		*		*
살과		*	*!	*
사과		**!	*	

그런데 위와 같이 자음군의 두 자음이 서로 조음 위치가 다른 경우가 아니라 ‘할다’처럼 두 자음이 다 coronal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음 위치 말고 다른 성격의 제약이 더 필요하게 된다. 또, ‘짧다→짤다’의 경우에도 조음 위치 강도가 더 높은 labial이 남지 않고 약한 coronal의 유음이 남게 되므로 별도의 제약이 더 필요해진다.

그래서 본고는 또 하나의 형태적인 제약으로 Contiguity를 제안한다.

10) Contiguity : VC₁C₂의 연쇄에서 V다음에는 C₁이 와서 입력형과 출력형에서 인접하여 실현되어야 하며 C₁을 뛰어넘어서는 안된다.

이 제약의 효과는 한 형태소의 어형 변화표를 통일(Paradigm Leveling)시키는 것이다. 자음군이 있는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함께 실현될 때에 C₁만이¹⁰⁾ 음절말음으로 실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될 때에도 똑같이 C₁이 음절말음인 어간형을 유지하여 같은 형태소의 어간을 평준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약이다. 화자의 인지적 부담이 훨씬 줄어¹¹⁾들게 된다.

이 제약은 Parse-Peripherality제약의 다음에 오게 된다.

11)

	*Complex	Parse	Parse-peri	Contiguity	Nocoda
할고	*!				**
할고[할꼬]		*			*
할고		*		*!	*
하고		**!		*	

10) ‘값이→갑시→갑씨 비싸다.’에서 체언 형태소의 음절말 자음군 중에서 탈락되어버리는 것은 없지만 본래 음절의 말음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C₂가 아니라 C₁이다. C₂는 어미의 음절두음으로 실현된다.

11) 짤브니, 짤븐 머리, 짤바졌다, 짤고[꼬] 이상해졌다, 짤게[께] 되다, 짤지[찌] 앓다... 등에서 모든 어간이 후행 자음의 성격과 무관하게 ‘짤’로 통일된다.

그런데 다음의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의 제약순 수정이 필요하다.

12)

/짧+고/	*Complex	Parse	Parse-peri	Contiguity	Nocoda
짧고	*!				**
짧고[짧꼬]		*	*		*
짧고		*		*	*
짜고		**!	*	*	

C₂가 labial인 자음군은 표준어 데이터와 기존의 연구가 채택한 자료 사이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다. 표준어에서는 ‘짧고[짧꼬]’가 정확한 발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labial이 있는 ‘옹고’는 ‘옹고[옹꼬]’로 발음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88년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표준어가 ‘짧고[짧꼬]’라고 보는 논문들도 많았다. 더욱이 같은 ‘ㄹㅂ’의 겹자음 중에서도 ‘뵤다’ 등은 ‘뵤다’를 표준발음이라고 예외 처리하고 있어서 일관적이지 않은 것을 1)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이 혼란을 적절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본고는 위 12)와 같이 Parse-peri와 Contiguity의 제약순이 동등하다고 보는 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물론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Parse-dorsal >> Parse-labial : Contiguity로 제약순을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¹²⁾

이 제약순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주변위치에서 조음되는 자음을 탈락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형태소의 동화가능성을 줄이고 보존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주변 위치 중에서도 dorsal이 가장 강한 위치자질인 반면 labial자질은 이보다는 덜 강하다. 이를 제약순에 반영되어 Parse-dorsal제약은 Contiguity제약을 엄격하게 지배하는 반면 Parse-labial 제약은 Contiguity와 같은¹³⁾ 제약순을 얻게 되는 것이다.

12) 그렇다면, 모든 자음군의 경우에 제약순이 다 같아진다.

13) 만일 이 둘을 tie ranking처리하지 않으면 표준발음 [짧]이 최적형의 선정과정에서 먼저 탈락하게 된다.

3.3 다시 음운적 제약

위의 12)에서 아직까지 결정되지 못한 최적형을 가리기 위해서는 음운적인 제약이 하나 더 필요하다.

- 13) NoCoda (Sonorant) : 음절말음에는 [+son]자질이 없는 자음은 없어야 한다. 이하 Nc-son으로 약함.

이를 쉽게 해석하면, 음운적인 측면에서 음절말음에 없는 개음절이 가장 발음하기 쉬운데 만일 어쩔 수 없이 음절말음에 자음을 하나 허락한다면 공명음이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명음으로 끝난다면 음절핵에서 음절말음으로의 공명도 경사가 덜 급하게 되어 다음 음절의 두음에서 음절핵으로의 공명도 상승 경사가 이보다 더 급하게 되는 것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약은 앞에서 설정한 형태 제약들 보다는 후순위에 오고 Nocoda라는 음운 제약보다는 더 특수한 내용이므로 앞에 와야 한다. 형태적인 제약보다 비교적 후 순위에 와서 위반이 어느 정도는 허용되는 근거는 첫째, 우리말의 음절말음에는 공명음이 아닌 저해음 또한 허용되는 언어 현실을 감안해서이고, 둘째로는 두 음절 접촉시 음절말음-음절두음 간의 공명도의 조절은 언제나 다른 음운 현상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이다.¹⁴⁾

- 14) 그 예가 바로 경음화와 비음화이다. 앞음절의 음절말음의 위치에 저해음이 오고 뒷음절의 두음이 공명음(혹은 자음강도가 더 낮은 자음)이 올때 바람직한 음절 구조에 어긋날 것 같지만 실제의 음성형에서는 앞의 저해음이 비음화하거나 혹은 뒤의 자음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경음화현상 등을 통해서 언제나 공명도 연쇄 제약이 만족된다.

예) 국물 → 궁물 : 상대적으로 공명도 '저-고'의 불만족스러운 연쇄이었으나 앞자음의 비음화를 통해서 앞음절 말음의 공명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공명도 연쇄인 '고-고'가 된다.

국자 → 국자 : 조음 방법 측면에서 파열음이 파찰음보다 공명도가 더 낮다고 볼 때 상대적 공명도 연쇄는 '저-고'이다. 그러나, 의무적인 경음화 음운현상의 결과 경음으로 실현된 파찰음의 공명도가 낮아지고 '저-저'가 되어서 결국 공명도 연쇄

14)

/꺄+고/	*Comp	Parse	Parse-peri	Contiguity	Nc-son	Nocoda
꺄고	*!					**
꺄꺄 꺄고[꺄꺄고]		*	*			*
꺄꺄고		*		*	*!	*
꺄꺄고		**!	*	*		

3.4 종합

지금까지 제시한 제약들의 제약순을, 다양한 성격의 현대 국어의 자음군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시켜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15)

/뭇+도/	*Comp	Parse	Parse-peri	Contiguity	Nc-son	Nocoda
뭇도	*!				**	**
꺄꺄 뭇도[뭇도]		*			*	*
뭇도		*	*!	*	*	*
모도		**!	*	*		

16)

/얏+다/	*Comp	Parse	Parse-peri	Contiguity	Nc-son	Nocoda
얏다	*!				*	**
꺄꺄 얏다[얏따]		*				*
얏다		*		*!	*	*
아다		**!		*		

17)

/얏 ¹⁵⁾ +고/	*Comp	Parse	Parse-peri	Contiguity	Nc-son	Nocoda
얏고	*!				*	**
꺄꺄 얏고[얏코]		*				*
얏고		*		*!	*	*
아고		**!		*		

조건을 만족시킨다.

15) 음절 말음에서 ‘ㅎ’은 [+coronal]로 본다.

18)

/꺾+지/	*Comp	Parse	Parse-peri	Contiguity	Nc-son	Nocoda
꺾지	*!				*	**
꺾지		*	*!			*
꺾지[꺾찌]		*		*	*	*
꺾지		**!	*	*		

19)

/꺾+고/	*Comp	Parse	Parse-peri	Contiguity	Nc-son	Nocoda
꺾고	*!					**
꺾고[꺾꼬]		*		*		*
꺾고		*	*!			*
꺾고		**!	*	*		

20)

/읍+지/	*Comp	Parse	Parse-peri	Contiguity	Nc-son	Nocoda
읍지	*!				*	**
읍지[읍찌]		*		*	*	*
읍지		*	*!			*
으고		**!	*	*		

21)

/훽+계/	*Comp	Parse	Parse-peri	Contiguity	Nc-son	Nocoda
훽계	*!				*	**
훽계[훽께]		*				*
훽계		*		*!	*	*
후계		**!		*		

위에서 ‘훽계’는 조음위치 동화작용 결과 ‘훽계’가 되고 결국 ‘후계’로 발음 되기도 한다.

22)

/꺾+계/	*Comp	Parse	Parse-peri	Contiguity	Nc-son	Nocoda
꺾계	*!				*	**
꺾계[꺾께]		*				*
꺾계		*		*!	*	*
꺾계		**!		*		

이상과 같이 모든 종류의 자음군단순화 현상을 공통된 제약과 제약순으로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었는데 덧붙여서 ‘ㄹㄱ’자음군이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¹⁶⁾는 예외적으로 ‘ㄹ’로 단순화되는 현상도 아래와 같이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23)

/입+고/	*Comp	Parse	Parse-peri	Contiguity	Nc-son	Nocoda
입고	*!				*	**
입고[입꼬]		*	*			*
익고[이꼬]		**!		*		*
이고		**!	*	*		

한편 범 언어적으로 unmarked한 음운적 제약이 한 언어의 전체 제약순에서 하위에 있는 경우에는 음운적인 unmarked 현상이 최적형으로 선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상위의 제약이 최적형을 선택하는 데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하위의 음운적 제약에서 최적형의 선택이 판가를 나게된다. 이 현상을 ‘the emergence of the unmarked’라고 명하는데 이 TETU 현상을 현대 국어의 자음군 단순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음절말음 제약 중 보편적인 음운 제약으로 [+son] 자음만 허용된다는 Nocoda-sonority 제약이 있었는데 이 제약은 보다 더 상위의 형태 제약인 Parse-peripherality 혹은 Contiguity 제약에 대해서는 하위의 제약이다. 국어 자음군 단순화를 지배하는 제약순에서는 이 형태 제약들이 음절말음은 공명도가 높은 자음을 더 좋아한다는 음운제약보다 상위에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는 공명도가 더 높은 자음이 음절말음으로 채택되지 못한다(입자→*일자, 값→*간). 그렇지만, ‘활다’같이 두 자음 중에서 주변위치의 자음이 없어서 Parse-peripherality 제약으로 최적형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와, ‘짧다’처럼 Parse-peripherality 와 Contiguity라는 두 형태 제약이 같은 제약순인 까닭에 형태제

16) 도표18)과 비교.

약의 단계에서는 최적형을 가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다음 단계의 Nocodasonority 제약을 통해서 최적형을 가릴 수 있게 되고 음운론적으로 보편적인 음절말음을 가진 음성형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4. 결 론

지금까지 현대 국어의 표준발음법을 기준으로 해서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고찰해 보았다. 이 현상과 관련된 몇 개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이 요인들이 각 경우마다 영향력을 달리 작용하므로 일관된 설명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당히 복잡한 음운 현상이었다.

그래서 기존의 규칙 중심의 논의로서는 모든 과정에 정연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규칙을 세우기란 힘들 수 밖에 없었다. 최적성 이론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제약과 제약순의 근본적인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일관된 설명이 없었다.

본고는 자음군 단순화의 현상을 우선 음절말 자음을 하나만 발음하는 조음편이의 측면을 중요시하여 *Complex제약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었다.

그렇지만, 단순히 조음 편이를 위해서라면 극단적으로 겹자음 둘을 다 탈락시킬 수도 있을 터인데 반드시 하나의 자음은 남는 방향으로 자음군이 단순화되는 것을 보고 형태소를 보존시키려는 취지의 Parse제약을 설정했다. 이로써 겹자음이 완전히 탈락되는 것이 방지되었다.

다음으로는 둘 중 하나를 남긴다면 어떤 성질의 자음을 남기는 것이 형태소 보존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제약으로써 Parse-peripherality 제약을 설정했다. 이미 현대 국어의 자음군은 둘 다 발음되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발음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씩을 번갈아 발음했을 경우에 후행 음절두음에 동화될 가능성이 낮은 주변음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조음 위치 자질에 대한 이 같은 형태적인 해석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관점으로써 본고의 설명이 간결할 수 있게 만든 동인으로 작용했

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처럼 조음 위치 자질을 음운적인 측면에서 이해한 논의에서 볼 수 있는 오류들 즉, 유절말 자음이 자음강도가 높은 것도 더 좋아하고 동시에 공명도가 더 높은 것도 더 좋아한다고 보는 논리적 충돌을 해결했다.

다음으로 한 형태소의 통일된 음성 실현을 추구하는 Contiguity제약을 설정했는데 조음 위치 제약으로 설명이 불충분할 경우에 효과적이었다.

다음 순으로 또 하나의 음운제약이 필요했다. 바로 음절말음은 공명성의 자음을 좋아한다는 언어 보편적인 제약(Nocoda-sonorant)인데 상위의 형태제약들로서 최적형을 가릴 수 없는 '짧다, 훅다'와 같은 자료들에서는 무표적인 유절요건을 만족시키는 후보를 최적형으로 선정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상과 같은 공통의 제약과 제약순 아래에서 모든 종류의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아쉬운 것은 자음군 단순화와 연관된 또 다른 음운 현상들이 많은데 음절 구조를 부여받지 못하고 탈락된 자음이 후행 자음을 경음화시키거나 혹은 격음화시키거나 아니면 유성음화의 환경에서 유성음화를 저지시키게 되는 이른바 'opaque'의 문제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다루지는 못했다. 자음군 단순화의 양상이 방언 사이에서 보이는 변이의 현상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겨 놓는다.

참 고 문 헌

- 곽동기 (1992). 운율 단위에 의한 국어 음운 현상의 분석. 서울대 언어학과 박사학위 논문
- _____ (1999). 음운론적 단어와 유절화. 「언어학」 제 24호. 한국언어학회
- 김경란 (1998). Leveling in Korean. 「음성, 음운, 형태론 연구」 4. 한국 음운론학회
- 김선미 (1991). 현대 한국어의 겹받침 줄이기. 「언어연구」 4. 서울대 언어연구회
- 김승곤 (1987). 겹받침 가운데 한 받침의 묵음화에 관한 생리 음성학적 원인 고찰. 「장태진 교수 회갑 기념 국어 국문학 논총」. 삼영사
- _____ (1996). 겹받침 중 ㄴ스, ㄹㅌ에서 ㄴ과 ㄹ이 발음되는 까닭 고찰. 「말소리」 31.32. 대한 음성학회
- 김영석(1984). On the Treatment of Consonant Cluster Reduction. 「어학연구」 20-4.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김원보 (1998). An Optimality-Theoretic Approach to Korean and English Consonant Cluster Simplification. 「음성, 음운, 형태론 연구」 4. 한국 음운론학회
- 김진우 (1971). 국어음운론에 있어서의 공모성. 「어문연구」 7. 대전
- _____ (1972). Two phonological notes : A-sharp and B-flat. in Michael Brame ed. *Contributions to Generative Phonology*. The University of Texas Press
- _____ (1973). Gravity in Korean phonology. 「어학연구」 9-2. 서울대 어학연구소
- 김차균 (1976). 국어의 자음 접변. 「언어학」 제1호. 한국언어학회
- _____ (1987). 말끝 닿소리떼의 단순화. 「한글」 196. 한글학회
- 배주채 (1989). 음절말 자음과 어간말 자음의 음운론. 「국어 연구」 91. 서울대 국어연구회
- 송철의 (1982). 국어의 음절 문제와 자음의 분포 제약에 대하여. 「관악 어문연구」 7집

- 오미라 (1993). Neutralization and Consonant Cluster Simplification. 「음성, 음운, 형태론 연구」 1. 한국 음운론 학회
- 오정란 (1993). 국어 음운현상에서의 지배관계. 「음성, 음운, 형태론 연구」 1. 한국 음운론학회
- 이병근 (1977). 자음동화의 제약과 방향. 「이승녕 선생 고회 기념 국어 국문학 논총」. 탑출판사
- 이진호 (1997). 국어 어간말 자음군과 관련 현상에 대한 통시 음운론. 「국어 연구」 147. 서울대 국어 연구회
- 이혜숙 (1980). 한국어의 겹받침. 「언어」 5-2. 한국 언어학회
- 전상범 (1976). 현대 국어에 있어서의 된소리 현상. 「언어」 1-1. 한국 언어학회
- 전종호 (1997). An Acoustic Analysis of Reduced Articulations. 「언어학」 제 20호. 한국 언어학회
- _____ (1998). Restrictions on Consonant Clusters. 「언어학」 제 23호. 한국 언어학회
- 허 응 (1985). 국어의 변동 규칙과 한글 맞춤법. 「한글」. 한글학회
- 「표준어 규정」 (1988). 문교부 공시
-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 (1998). 국립 국어 연구원
- 「표준 한국어 발음 대사전」 (1993). KBS편. 어문각
- Archangeli, D. and D. T. Langendoen(eds.). *Optimality Theory : An Overview*. Oxford:Blackwell
- Avery, P. and K. Rice. (1989). Segment Structure and Coronal Underspecification. *Phonology* 6
- Byrd, D. (1992). Perception of assimilation in consonant clusters : A gestural model. *Phonetica* 49
- Clement G. N. (1990). The Role of the Sonority cycle in Core Syllabification. *Between the grammar and physics of speech(Papers in laboratory phonology 1)*
- Iverson, G. K. and S. Lee. (1995). Variation as Optimality in Korean Cluster Reduction. *Proceedings of the Eleventh Eastern States Conference on Linguistics*. ed.

- by J.Fuller. H. Han & D. Parkinson. Ithaca. NY : DMLL publications
- Jones. C. (1970). Some Constraints on Medial consonant clusters. *Language* 52
- Kager. Rene. (1999). *Optimality Theory*. Cambridge
- McCarthy. J. and A. Prince. (1994). The emergence of the unmarked : optimality in prosodic morphology. in M. Gonzalez(ed.). *Proceedings of the North East Linguistic Society* 24
- _____ (1995). Faithfulness and reduplicative identity. in Beckman. Walsh Dickey. and Urbanczyk
- Prince. A. and P. Smolensky (1993). *Optimality Theory :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Ms..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and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 Roca. Iggy and Wyn Johnson. (1999). *A Course in Phonology*. Blackwell
- Stevens. K. N. (1989). On the quantal nature of speech. *Journal of Phonetics* 17
- Vennemann. Theo. (1988). *Preference Laws for Syllable Structure*, Mouton de Gruyter
- Whitman. J. (1985). Korean Clusters. in S. Kuno et al. 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Hanshin publishing co.
- Yip. M. (1991). Coronals. Consonant Clusters and Coda condition. in C. Paradis and J.F.Prunet. eds.. *The Special Status of Coronals (Phonetics and Phonology volume 2)*. Foris. Dordrecht. Academic Press. Inc.

An Optimality-Theoretic Approach to Korean Consonant Cluster Simplification

Moon, Yang-S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how all types of consonant cluster simplification(CCS) in Korean can be explained in a unified mode applying OT.

According to CCS, one of the two consonants in a coda must be deleted in order not to violate the *Complex.

It is the focus of this study to explore the consonants which are preserved. Generally, language universally and in other phonological processes in Korean, the syllable codas prefer the consonant of the higher sonorant if that syllable can not be an open syllable.

Contrariwise, the Korean undergoes simplification by displaying a different pattern : simplified codas prefer the less sonorant consonant of the peripheral place. Thus, Nocoda-sonorant is low-ranked.

This study claims that morphologically-based constraint(Parse-peripherality) is the main factor in determining CCS so that selected peripherals preserve the morpheme of the stem and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the non-peripheral coda being assimilated by the following onset. If morphological constraints can not decide a candidate, then phonological constraints evaluate the optimal output.